

지방소멸대응 지역경제 활성화포럼

2024. **6. 12.** (수) 14:00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지방소멸대응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주제 지방소멸대응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



○ 일시 | 2024. 6. 12. (수) 14:00

○ 장소 |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 주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단양군

○ 프로그램

개회식

14:00~14:15
(15분)

개회사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권한대행
환영사 김문근 단양군수
축사 조성룡 단양군의회 의장

주제 발표

좌장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발표 1
지역 인구감소 위기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 단양군 생활인구 특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

발표 2
3개 키워드로 보는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
정선희 한국관광공사 국제마케팅지원실장

휴식 (10분)

라운드테이블

14:55~15:55
(60분)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투자평가부장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문소연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전략팀장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윤소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가나다순

폐회

지방소멸대응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주제 지방소멸대응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



목 차

개회사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권한대행 2

환영사

김문근 단양군수 4

축사

조성룡 단양군의회 의장 6

주제 발표

**지역 인구감소 위기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 단양군 생활인구 특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9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

3개 키워드로 보는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 27

정선희 한국관광공사 국제마케팅지원실장

라운드테이블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투자평가부장 41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43

문소연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전략팀장 45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47

윤소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49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51

개회사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권한대행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권한대행 주재복입니다.

오늘 단양군과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방소멸대응 지역경제활성화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에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해주신 단양군 김문근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축사와 발제, 토론 등을 위해 직접 참석하셔서 행사를 빛내주고 계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정하고, 지역의 특성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지역 주도의 성장과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접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은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다루는 '지방소멸'과 '관광 활성화'는 정부의 지방시대를 위한 9대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인구감소를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지방정부를 다양한 각도에서 현실적인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맞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지방자치의 발전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와 현장 컨설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포럼이 특색있는 지역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거듭 소망하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2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권한대행 주재복

환영사



김문근
단양군수

“지방소멸대응, 지역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로 대응”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수 김문근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시간을 마련해 <지방소멸대응 지역경제활성화포럼>을 함께 주최해 주신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원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단양군을 위해 포럼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를 비롯한 학계, 정치·경제계 등 전방위에 걸쳐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며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단양군도 2019년 인구 3만이 붕괴된 이후 계속 인구가 감소 중이며 더불어 합계출산율 0.73, 65세 인구가 37.1% 초고령화 사회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무엇보다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단양군 인구에 문제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생활인구 시범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산정한 결과 단양군 생활인구는 27만 명으로 등록인구 약 2만8천명, 체류인구 약 24만 명을 합한 수치입니다.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8.6배로 시범 산정 지자체 7개 중 등록인구 인구 대비 생활인구가 가장 큰 규모입니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도입한 실제 군민과 동일하게 관광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 제도를 통해서도 체류인구는 입증됩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발급현황을 보면 1년 만에 54,614명이 발급받아 등록인구 대비 약 200%가 실제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방문을 위해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양군이 과거부터 관광을 1순위 중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한 결과이며, 더욱 가능성이 있는 미래산업으로 지속 투자한 결과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로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이 선정되어 앞으로 단양 관광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리조트, 관광시설 등 관광산업 개발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젊은 인구가 자연스럽게 유입, 단양군은 슬기롭게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지방소멸대응 지역경제활성화포럼>이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단양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단양군 발전에 항상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6월 12일
단양군수 김문근

축 사



조성룡
단양군의회 의장

지역소멸시대 위기 속에서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단양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소멸대응 지역경제활성화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오늘 뜻깊은 이번 포럼을 준비해 주신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주제발표 및 토론에 참가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과 포럼에 참석한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전반에서 나타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 그리고 경제, 교육, 문화적인 이유로 지방 청년층 이탈 가속화 등 지역소멸의 위기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 또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로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역에 맞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요즘 많이 언급되는 집단지성(集團知性)의 힘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할 방법을 함께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양한 방안과 관점을 가진 주제발표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지역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도 그중에 한 방법일 것입니다.

모쪼록 ‘지방소멸대응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을 통해 생활인구 활성화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로 우리 지역의 가치를 되새기고 단양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지역소멸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이번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단양군의회 의장 조성룡

지방소멸대응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주제 지방소멸대응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



발표 1

지역 인구감소 위기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 단양군 생활인구 특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

24년도 제1차 지역경제활성화 포럼

2024.06.12.

지역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 단양군 생활인구 특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이원도



wondo.lee@krila.re.kr

발표순서

제1장. 지역 인구감소 위기와 지방소멸의 현실화

제2장.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제3장. 단양군 생활인구 현황 및 특성

제4장.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 및 향후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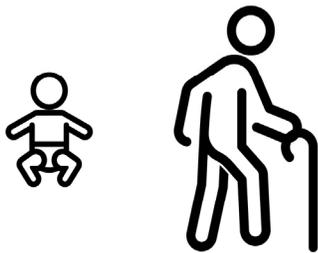
24년도 제1차 지역경제활성화 포럼

제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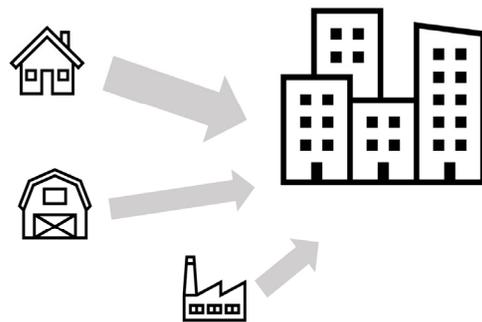
지역 인구감소 위기와 지방소멸의 현실화

1. 지역 인구감소 위기와 지방소멸의 현실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구문제의 도래

- 총인구 감소와 지역 간 인구 불균형 심화에 따른 인구감소시대 인구위기
- **단기적 위기 대응과 장기적 인구감소 적응 병행 전략 수립 필요**



인구절벽에 따른 (국가) 인구위기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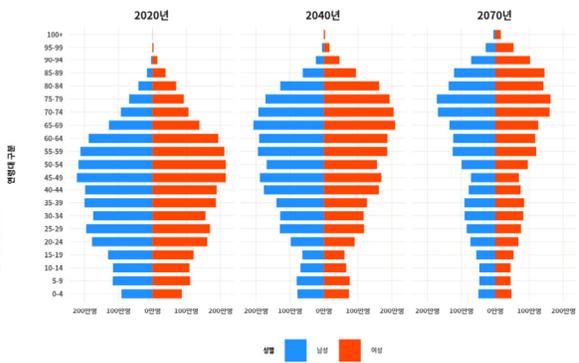
인구분포 불균형에 따른 (지역) 적응

1. 지역 인구감소 위기와 지방소멸의 현실화
인구의 양적 감소와 질적 변화

초저출산 현상

초고령사회 진입

-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추세 진행
- 수도권의 감소속도가 더욱 빠름
- 생산성 저하와 경제성장률 하락
- 고령인구 사회복지비용 자원마련 문제



통계청('21년 12월에 공표 장래인구추계) 자료 재구성

통계청('21년 12월에 공표 장래인구추계) 자료 재구성

1. 지역 인구감소 위기와 지방소멸의 현실화
인구의 양적 감소와 질적 변화

인구감소지역 주요 현황 (충북 단양군)		인구감소지역 주요 현황 (충북 단양군)		인구감소지역 주요 현황 (충북 단양군)	
<p>인구증감률(2017~2021)</p> <p>충청북도 단양군</p>	<p>인구증감률 사분위수 지도(2021)</p>	<p>청년순이동률(2017~2021)</p> <p>충청북도 단양군</p>	<p>청년순이동률 사분위수 지도(2021)</p>	<p>유소년비율(2017~2021)</p> <p>충청북도 단양군</p>	<p>유소년비율 사분위수 지도(2021)</p>
<p>인구밀도(2017~2021)</p> <p>충청북도 단양군</p>	<p>인구밀도 사분위수 지도(2021)</p>	<p>고령화비율(2017~2021)</p> <p>충청북도 단양군</p>	<p>고령화비율 사분위수 지도(2021)</p>	<p>조출생률(2017~2021)</p> <p>충청북도 단양군</p>	<p>조출생률 사분위수 지도(2021)</p>

(전국 평균 대비) 단양군 조출생률과 유소년 비율이 낮음
지표별 지역 내 격차가 크게 존재함

1. 지역 인구감소 위기와 지방소멸의 현실화
지역쇠퇴로 인한 축소사회 적응

“지방소멸” 우려의 현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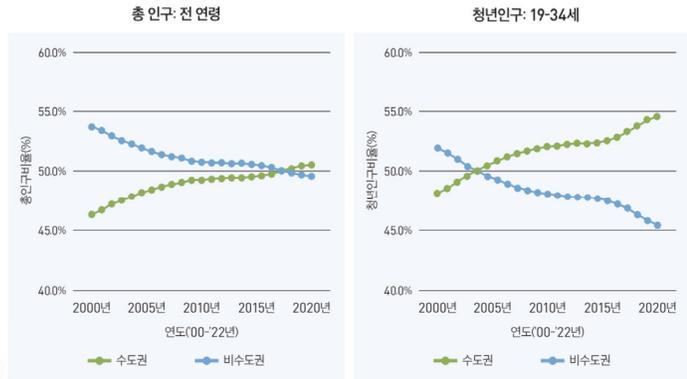
<등장배경>

-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 국가
- 지속적인 비수도권의 인구유출 심화

<문제점>

1. 지역쇠퇴(regional decline)가 발생
2.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지역역량 감소
3. 지역체계의 붕괴가 우려, 최종적으로
무거주지화(marginal settl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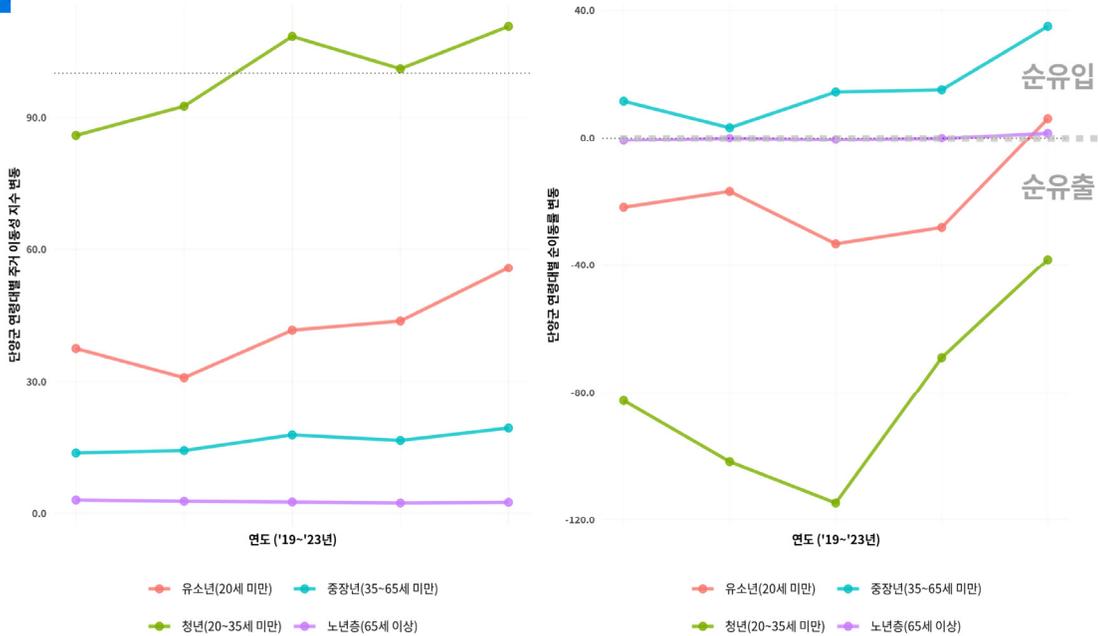
그림 1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분포의 변화: 전 연령대와 청년인구(만 19~34세)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구역(시군구별)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비수도권, 이른바 지방의 인구감소(underpopulation)와 수도권의 인구과잉(overpopulation)의 인구양극화 현상

1. 지역 인구감소 위기와 지방소멸의 현실화
지역쇠퇴로 인한 축소사회 적응



생애주기 중 청년의 주거 이동성은 가장 높음,
단양군 청년인구는 계속 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감소추세), 수도권 전입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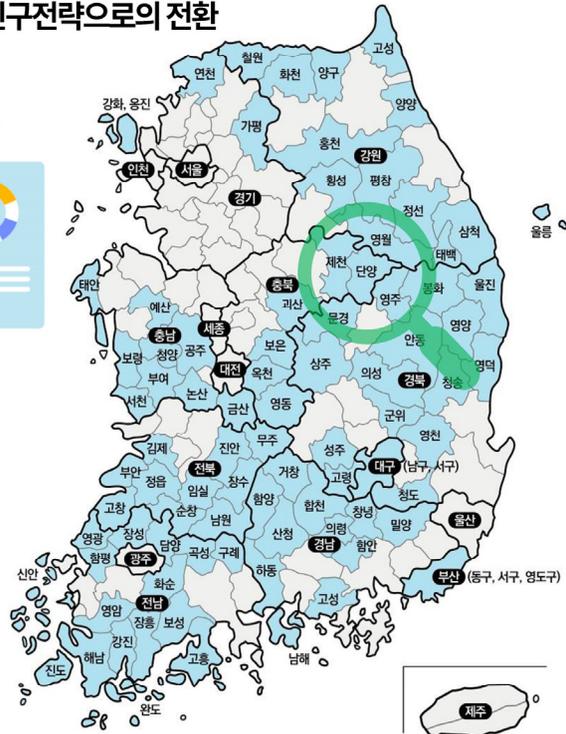
24년도 제1차 지역경제활성화 포럼

제2장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2.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대응방향 #1: 인구정책에서 (지자체 주도) 인구전략으로의 전환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인구감소지수 지표(8개)에 근거,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대상, 관심지역 18개소)을 지정
-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효과적인 (지역) 인구감소 위기대응 정책수립 및 시행

2.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대응방향 #1: 인구정책에서 (지자체 주도의) 인구전략으로의 전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 주민생활거점(단양읍)과 인구유출 방지담(매포읍)을 중심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대응
-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산업 (제1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 충북-단양-국가철도공간-민간 컨소시엄에서 공동출자(총사업비 1,133억원)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계획도



단양역 공원과 트램 계획도

2.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대응방향 #2: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 인구감소대응 필요



대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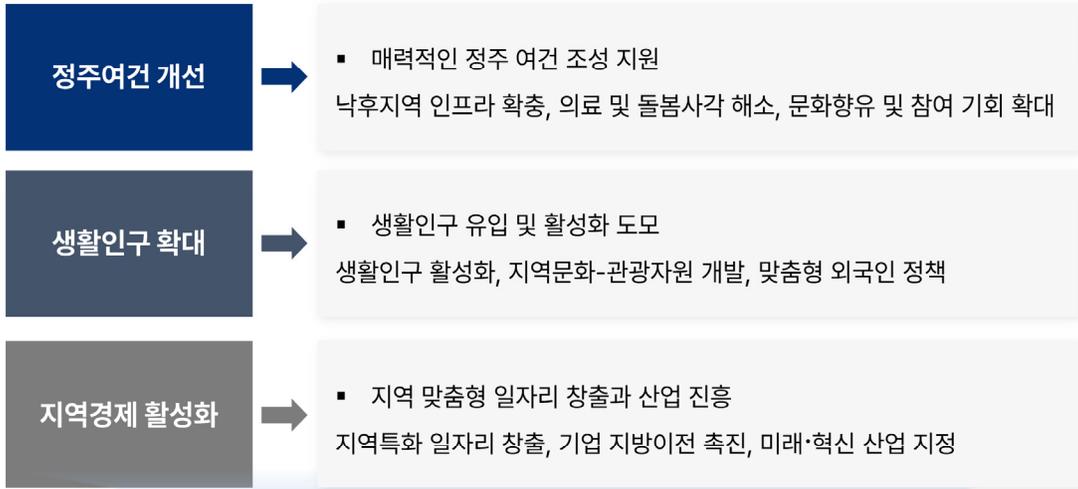
중소도시

- `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50.1%)가 비수도권 인구역전, 비수도권 20~30대 청년인구 유출 심화는 수도권-비수도권의 인구 불균형은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가속화
- 이러한 인구 불균형 문제는 지역 간 불평등 심화와 함께 경쟁력이 떨어진 비수도권 지역(예: 농어촌 및 중소도시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를 초래하므로, 인구감소 위기 및 지역별 인구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과 전략이 필요

2.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대응방향 #2: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 인구감소대응 필요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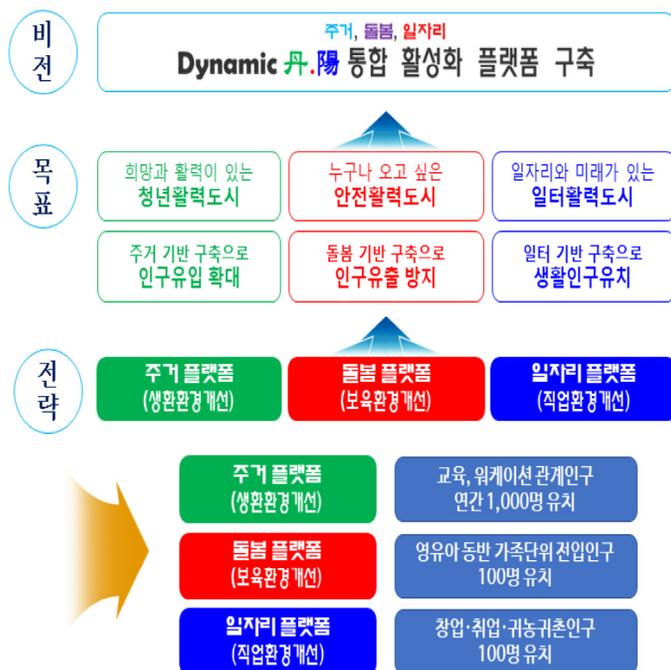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2.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대응방향 #2: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 인구감소대응 필요

단양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2.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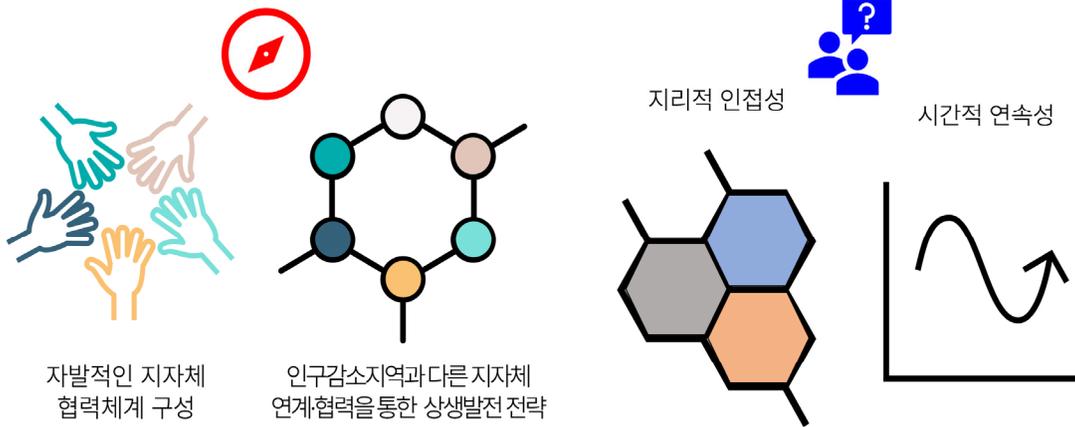
대응방향 #3 : 일상생활의 권역(생활권)기반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

-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인구감소지역이 다른 (인구감소지역 혹은) 기초 지자체 간의 자율적인 협력관계 체결

“사람이 살아가고 활동하는 기본적인 공간단위로서,

생활의시설이 충분히 제공되어 일상생활의영위가 가능한 공간범위(이원도·유수동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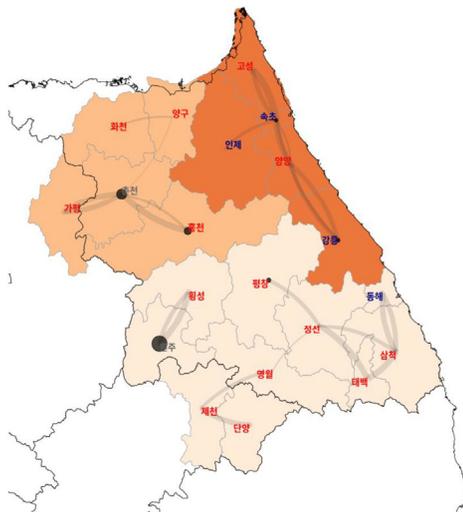
-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역 파트너십을 근거로 중앙정부가 추가적인 지원



2.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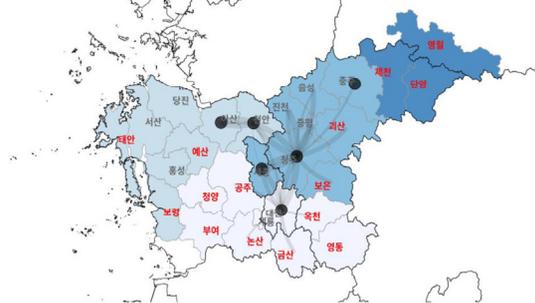
대응방향 #3 : 일상생활의 권역(생활권)기반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

중심성 기반 생활권 분류 (통근통학, Knn=4, Thres=10, 10년 이상)



자료: 이원도·유수동 (2023).

중심성 기반 생활권 분류 (유동인구, Knn=4, Thres=100, 2년 이상)



- 단양군은 기종점 기반 연속적인 10년간 통근통학 통행량 기반 생활권 분석에선 **강원광역생활권-원주기초생활권**으로 분류되었음
- 반면에, 거주지(기점)-방문·체류(종점) 기반 연속적인 2년간 유동인구 데이터 기반 생활권 분석에선 **충청광역생활권-단양기초생활권**으로 분류되었음

1. 지역 인구감소 위기와 지방소멸의 현실화 소결

인구정책에서 인구전략으로 정책방향의 전환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지자체 주도의 인구감소대응을 강조, 국가는 행·재정적 지원 역할 수행
-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지역 간 연계·협력의 중요성

지자체의 빠른 현황파악과 추적관찰(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

- 축소사회 도래로 **일상생활생활권내 지자체간 효율적인 기능과 자원공유**를 통한 삶의 질 제고가 요구됨
- 총인구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주여건이 떨어지고 일자리 기회가 적은 **인구감소지역정주인구의 극적인 회복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지역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적방문자증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함께 **장기적 인구감소적응과 일자리 창출에 따른 체류인구증가 정책**이 고려되어야 함
- 시의성 있는 인구통계 중요성 및 정책적 의사결정 기초자료 필요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도입**

24년도 제1차 지역경제활성화 포럼

제3장

단양군 생활인구 현황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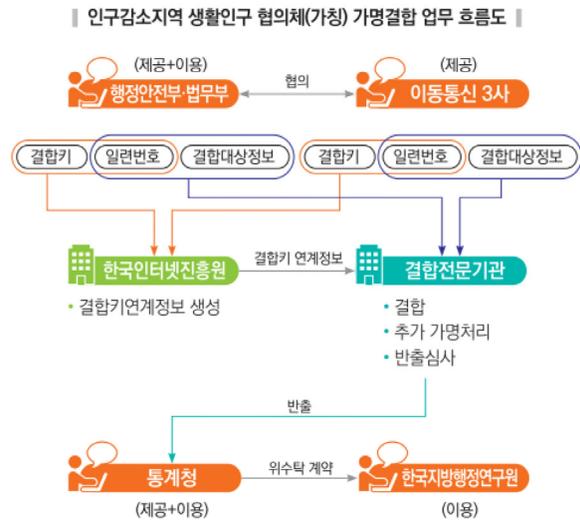
3. 단양군 생활인구 현황 및 특성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제도

개념

- “생활인구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3-33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월 1회 이상,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사람을 생활인구로 규정(제2조제1항)
- 다양한 공공과 민간 빅데이터를 통해(제8조) 산정한 결과를 월별로 공표(제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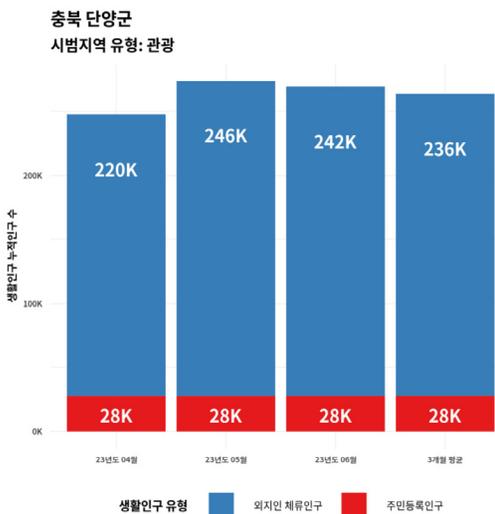
협력체계 (협의체)

- 공공 데이터(행안부, 법무부)와 민간 빅데이터 제공(이동통신 3사, 신용카드사 등) 기관
- 결합전문기관 혹은 데이터전문기관(신용정보 포함 시)
- 결합정보 이용자(통계청, 지행연)



자료: 이원도 (2024).

3. 단양군 생활인구 현황 및 특성 23년도 생활인구 시범산정 결과 (인구학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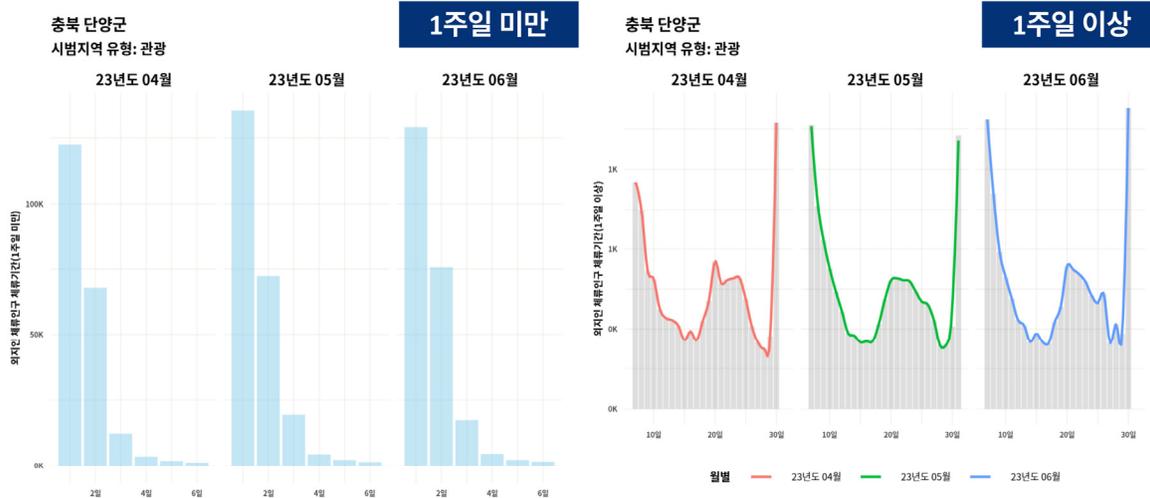


체류인구가 전체 생활인구 중 약 90%차지, 50대 남성(26%)과 여성(25%) 비중이 높음

자료: 이원도, 이소영, 홍근석 (2023).

3. 단양군 생활인구 현황 및 특성

23년도 생활인구 시범산정 결과 (숙박일수별 분포)



비정기 방문객(주말 혹은 1-2일 내외) 비중이 높으며, 정기 체류인구(20일 이상)도 일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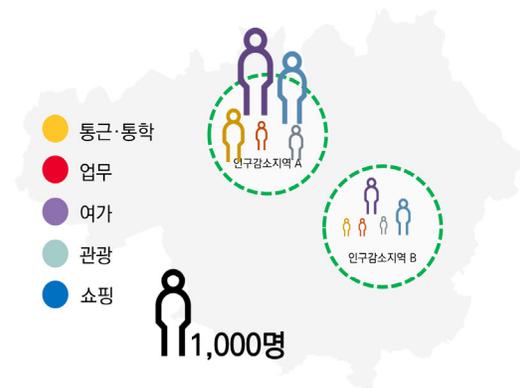
자료: 이원도, 이소영, 홍근석 (2023).

3. 단양군 생활인구 현황 및 특성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모니터링: 시의성 높은 실험적 통계 작성 및 활용방안 마련

방문인구 유입(생활인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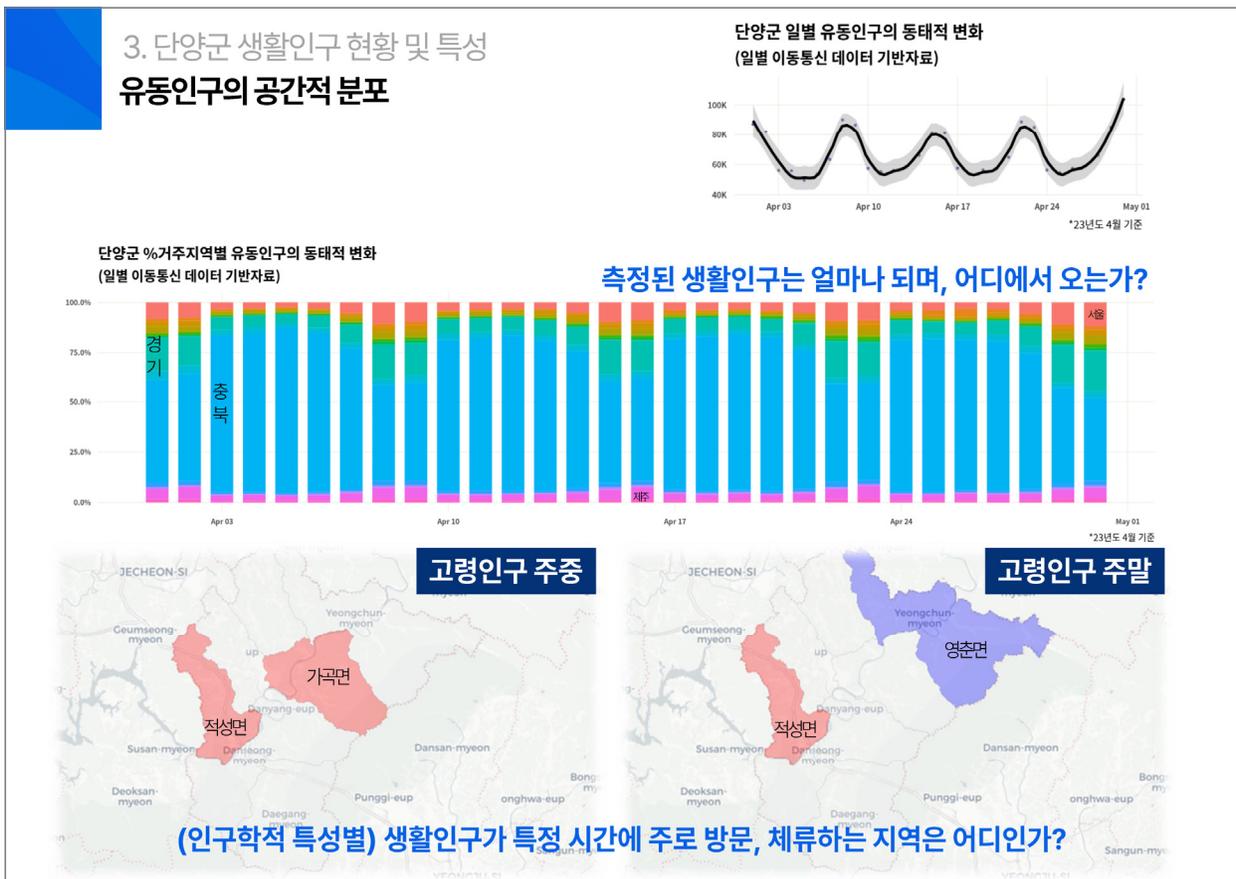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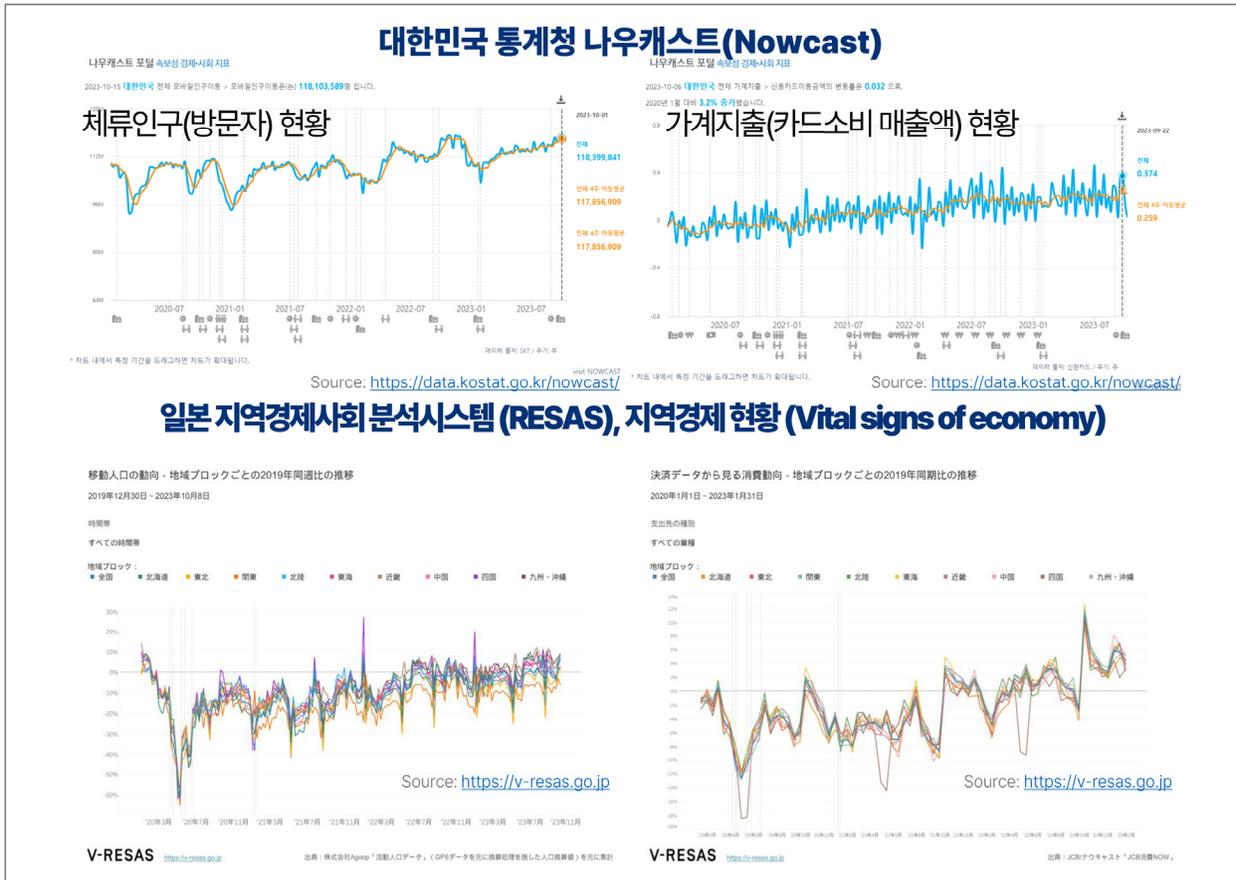
- 공공과 민간 빅데이터(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인구와 함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을 측정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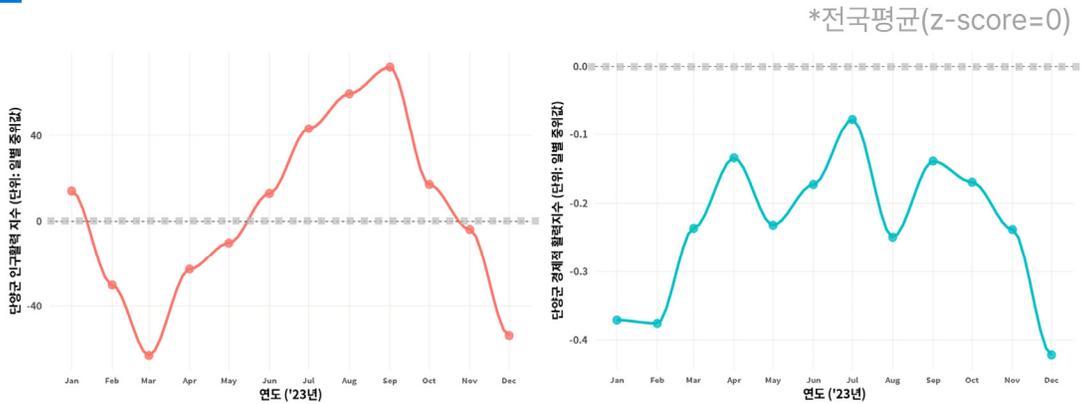
매출액 특성분석(지역경제 활성화)

-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개인카드(신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사용자에게 물품(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한 명세를 수집한 데이터





3. 단양군 생활인구 현황 및 특성 지역활력 평가 및 시사점



자료: 이원도 외 (2023).

- 단양군은 겨울(10월~익년 3월까지)보다 여름(7~9월)에 많이 방문·체류하며, 계절별 편차가 큼
- 여름부터 가을까지 방문·체류자는 (전국평균 대비) 많지만, 변동성이 큰 소비매출액은 항상 낮게 나타남
- 방문·체류가 소비매출로 이어지지 않음, 방문자 특성에 따른 소비행태 확인 및 이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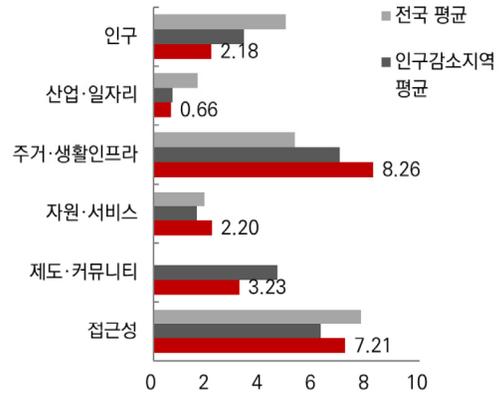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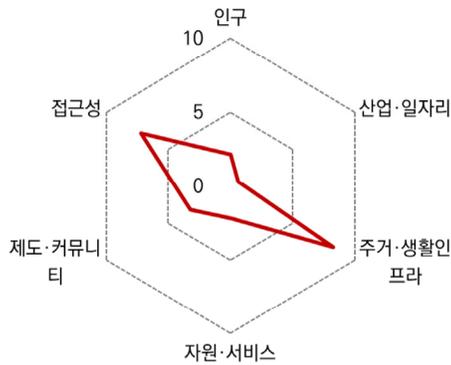
24년도 제1차 지역경제활성화 포럼

제4장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 및 향후 발전방향

4.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 및 향후 발전방향

생활인구 확대 전략 지표를 고려한 단양군 생활인구 확대방안



자료: 윤소연 외 (2023).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역 여건 수준을 판단하는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에서 단양군은 다른 인구감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주거·생활인프라(예: 보육 및 의료시설)와 교통접근성이 우수함
- 단양군은 단기적 관광 생활인구 유입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향후 정기형·장기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제도·커뮤니티 부분(예: 지역 공동체)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함

4.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 및 향후 발전방향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단기적 지역 자생력 확보와 장기적 지역 혁신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 방문자 경제활성화(visitor economy) 전략을 통한 **단기적 지역 자생력 확보**
 체류형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청년인구 유입촉진, 지역 수요 맞춤형 외국인 정책 등
- 스마트 축소와 같은 지역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같은 **장기적 지역혁신 전략마련**
 지역특화형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 주도 대학혁신을 통한 맞춤형 인재 양성, 기업 지방이전과 지역중소기업 혁신생태계 구축 등
- 지역 인구현황 파악과 인구감소위기 대응방안에 기초한 “지역활력 제고전략”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파악,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니터링이 가능**

4.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 및 향후 발전방향

향후 발전방향: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효과 극대화

민관협력 극대화 및
인구감소위기 극복



참고문헌

- 윤소연, 이경은, 유수동, 전대욱, 이원도. (2023).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지표 발굴 및 사례분석: 생활인구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자체연구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원도 외. (2023). 인구감소지역 지원방안 연구: 원인 분석 (수탁연구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원도, 이소영, 홍근석. (2023).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원도. (2024). 인구감소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생활인구의 도입. (지방자치정책브리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원도·유수동. (202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권 활성화 방안 (기본연구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통계청. (2022). "인구총조사" 통계정보보고서.

감사합니다

지방소멸대응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주제 지방소멸대응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



발표 2

3개 키워드로 보는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

정선희

한국관광공사 국제마케팅지원실장

2024년 1차 지역경제활성화 포럼

3개 키워드로 보는 지역관광활성화 전략

한국관광공사 국제마케팅지원실장 정선희
SHJEONG@KNTA.OR.KR

2

- I. 키워드 1 트렌드
- II. 키워드 2 데이터
- III. 키워드 3 성과지표

1. 2024년 글로벌 관광 트렌드

3

- 여행이 곧 삶, 삶의 성장과 균형의 도구
- 웰빙 여행, 신체 · 정신 · 정서의 성장 포괄
- 여행, 문화 탐험성 강화
- 전 세계 여행자 64% 여행의 특별 경험 소비

① 미식여행	음식, 문화, 체험
② 블레저	출장 + 휴가
③ 모험여행	즉흥, 미지의 여행
④ 공연여행	gig-tripping
⑤ 엔터테인먼트여행	Set-jetting
⑥ 스포츠관광	참여, 응원, e스포츠

2024 관광트렌드, 글로벌 관광트렌드 다이제스트, 한국관광공사

2. 2024년 국내 관광 트렌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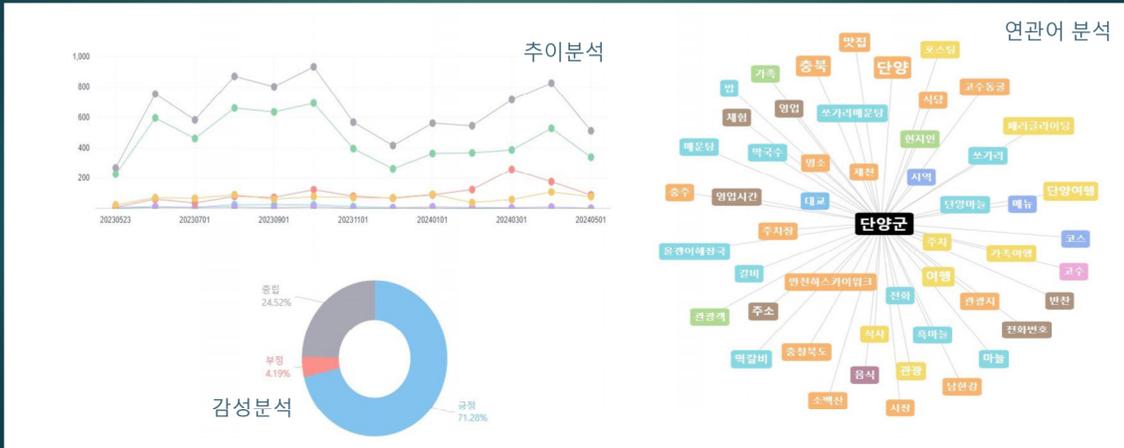
R elax and empty your mind (심이 있는 여행)	O ne point Travel (원포인트 여행)	U ndiscovered Place (나만의 명소 여행)	T ravel Tech (스마트기술 기반 여행)	E asy access for everyone (모두에게 열린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식/쉼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여행 • '힐링', '웰니스' 등 연관어 상승 추세 • 경험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한방, 자연 숲 치유', '뷰티', '건강식' 등이 높게 선택되며 심이 있는 여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한 테마/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 • 여행 성숙도가 높아져감에 따라 주요 관심사를 여행 테마로 하는 경향 • 원포인트 여행 관련 연관 키워드로 박물관/전시와 빙지순례 등이 언급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에서 보다 고유한 경험을 하고자 하는 니즈 •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관광지를 찾고자 하는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및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습득 및 활용 경향 • 온라인 기반 여행 서비스 경험 높은 편 • 해당 기능을 활용해 여행경험 기록, 예약 웨이팅 등에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취약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고령자 및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에 대한 인식 및 환경 변화

Data & Tourism Vol.25, 2024년 데이터로 미리 보는 국내 관광 트렌드, 한국관광공사

3. 데이터로 보는 지역 관광(feat. 단양)

5

- 소셜에 나타난 단양 관광
 - 2024.5.-2024.4 / 관광, 여행, 휴가 / 전체 8,38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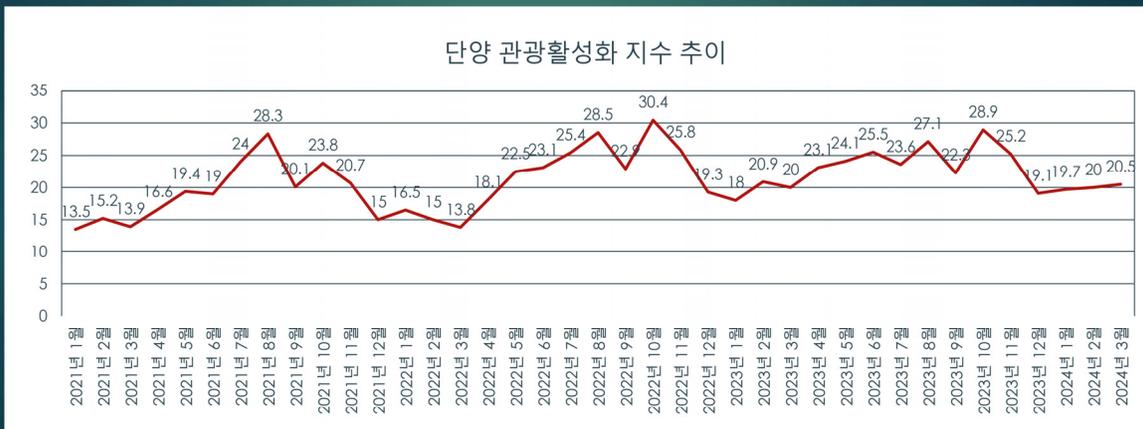


썬트렌드 비즈, 소셜 분석

3. 데이터로 보는 지역 관광(feat. 단양)

6

- 단양 관광활성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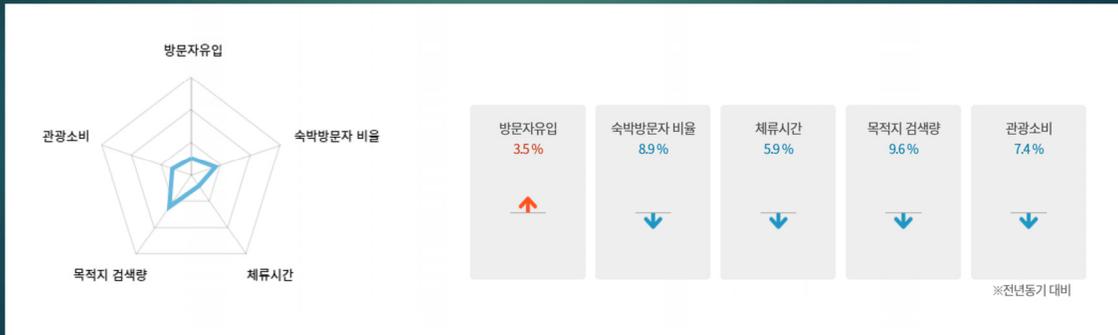


한국관광 데이터랩 datalab.visitkorea.or.kr

3. 데이터로 보는 지역 관광(feat. 단양)

7

- 지난 1년간(23.5월~24년 4월) 단양 관광은
 - 충청북도 방문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 단양군 방문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
 - 단양군의 전년 동기 대비 숙박 방문자 비율은 8.9% 하락 하였으며 체류시간은 5.9% 하락
 - 단양군의 관광 소비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 전국 평균 대비 증감률은 2.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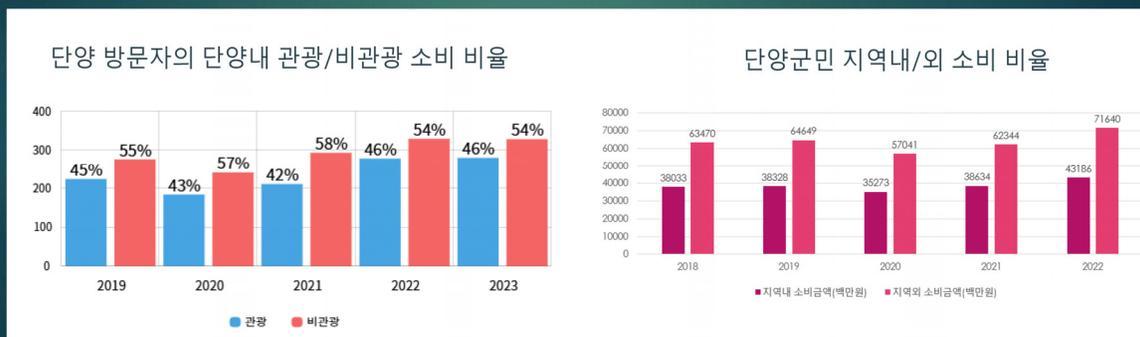


한국관광 데이터랩 datalab.visitkorea.or.kr

3. 데이터로 보는 지역 관광(feat. 단양)

8

- 단양 방문자의 단양 내 소비는 관광부문(숙박, 여행, 운송, 쇼핑, 여가서비스, 식음료)보다 비관광 부문의 소비비율이 높아
- 단양군민은 관광분야와 비관광분야 모두 지역내 소비보다 지역의 소비가 높아



한국관광 데이터랩 datalab.visitkorea.or.kr

3. 데이터로 보는 지역 관광(feat. 단양)

9

- 전국 기초지자체 vs 단양군 숙박 방문자 비율, 체류시간 비교



한국관광 데이터랩 datalab.visitkorea.or.kr

3. 데이터로 보는 지역 관광(feat. 단양)

10

- 언론기사에 나타난 단양관광은?

• 언론기사 300개 제목으로 만든 워드클라우드(*'24.1~5월)



• 최근 언론기사 상위 100개로 만든 워드클라우드(*'24.4~5월)



한국관광 산업포털 Touraz, 워드클라우드

4. 지역관광 진단과 평가 어떻게 ?

11

-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사업에 대한 현황 진단과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 지표로 활용 (성과지표) 방문객 효과 (특성지표) 방문객의 특성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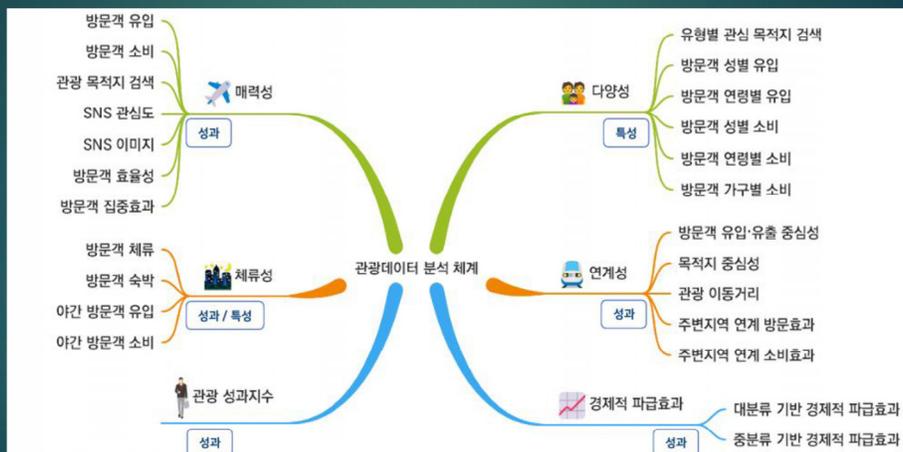
매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대상지(지역)에 얼마나 많은 방문과 소비가 집중되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통신, 카드, 내비게이션, sns 데이터 기준 방문자수, 소비금액, 검색 건수, 버즈량 등을 포함
체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대상지(지역)에 방문객 들이 얼마나 체류하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통신, 카드, 내비게이션 기준 체류시간, 시간대별 방문자 수 및 소비 등을 포함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대상지(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방문 및 소비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통신, 카드 데이터 기준 인구통계적 특성을 포함 사업의 효과 보다는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이 주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대상지(지역)가 다른 지역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로 통신, 카드, 내비게이션 데이터 기준 유입, 유출량을 포함

관광사업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한국관광공사

4. 지역관광 진단과 평가 어떻게 ?

12

-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사업에 대한 현황 진단과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 지표로 활용



관광사업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한국관광공사

4. 지역관광 진단과 평가 어떻게 ?

13

사업단계	요인	활용지표	분석방법	비고
전략수립	체류성	방문객 체류, 방문객 숙박, 야간 방문객 유입, 야간 방문객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객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체류 형태, 체류시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양적 총량, 비율 등을 파악함 (유형) 지역사업: 시군구 단위 (유형) 지점사업: 행정동 또는 POI 단위로 분석	경유형, 체류형 등 방문객 특성 파악
	다양성	유형별 관심 목적지 검색, 방문객 성별/연령별 유입, 방문객 성별/연령별/가구별 소비		방문객 인구통계적 특성 파악

관광사업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한국관광공사

4. 지역관광 진단과 평가 어떻게 ?

14

사업단계	요인	활용지표	분석방법
사업수행 (모니터링)	매력성	방문객 유입/소비, 관광 목적지 검색, sns관심도, sns이미지, 방문객 효율성, 방문객 집중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벤트, 홍보마케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로 각 요인에 대해서 월별 또는 일별 추세를 파악 (유형) 지역사업: 시군구 단위 (유형) 지점사업: 행정동 또는 POI 단위로 분석
	체류성	방문객 체류, 방문객 숙박, 야간 방문객 유입, 야간 방문객 소비	
	다양성	유형별 관심 목적지 검색, 방문객 성별/연령별 유입, 방문객 성별/연령별/가구별 소비	
	연계성	유입유출 중심성, 목적지 중심성, 관광이동 거리, 주변지역 연계 방문효과, 주변지역 연계 소비효과	

관광사업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한국관광공사

4. 지역관광 진단과 평가 어떻게 ?

15

사업단계	요인	활용지표	분석방법
성과평가	매력성	방문객 유입/소비, 관광 목적지 검색, sns관심도, sns이미지, 방문객 효율성, 방문객 집중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벤트, 홍보마케팅 등의 성과측정을 위해 사업 전·후, 과년도 동기 대비, 일상기간 대비 증감률 등을 파악 (유형) 지역사업: 시군구 단위 (유형) 지점사업: 행정동 또는 POI 단위로 분석
	체류성	방문객 체류, 방문객 숙박, 야간 방문객 유입, 야간 방문객 소비	
	다양성	유형별 관심 목적지 검색, 방문객 성별/연령별 유입, 방문객 성별/연령별/가구별 소비	
	연계성	유입유출 중심성, 목적지 중심성, 관광이동 거리, 주변지역 연계 방문 효과, 주변 지역 연계 소비효과	

관광사업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한국관광공사

5. 현황 진단 및 성과평가 활용 예시

16



관광사업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한국관광공사

5. 현황진단 및 성과평가 활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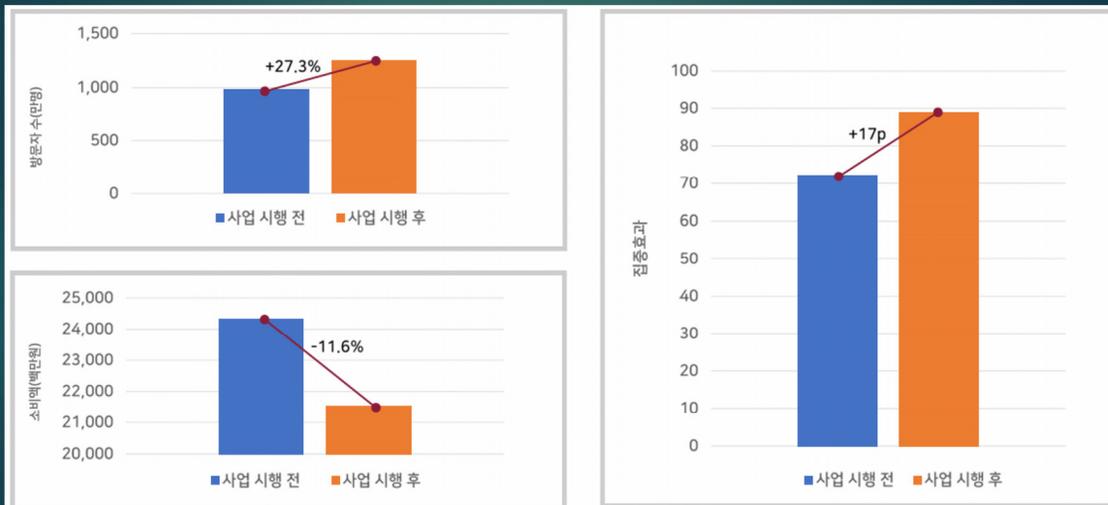
17



관광사업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한국관광공사

5. 현황진단 및 성과평가 활용 예시

18



관광사업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 트렌드 잘 읽기
- 데이터로 잘 파악하기
- 근거 있는 사업 발굴과 실행으로 성과 만들기

지방소멸대응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주제 지방소멸대응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



라운드 테이블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투자평가부장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문소연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전략팀장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윤소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토론문

지방소멸대응 지역경제활성화포럼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투자평가부장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대규모 융복합 개발 사업을 민간과 함께 수행하는데 있어 해당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시의 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과 디딤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융복합 지역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지원하여 해당 지역에 안착시키면 해당 융복합 지역 개발 사업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객을 불러 모으며,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투자된 자금은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다시 회수된 이후 또 다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단계에 거쳐 개발사업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검토 이후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양군 사업의 경우 SPC를 구성하는 동부건설을 포함한 민간 출자자들이 있으며, 코레이트 자산운용사가 자펀드 운영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레이트 자산운용사는 자펀드를 구성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 사업의 수익성이 확보되는 구조를 검토하였을 것이며, 민간 출자자들 또한 본인들의 수익성을 검토하여 사업 참여 의사를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개별 참여자가 각자의 관점에서 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하기에 모든 참여자가 해당 사업에 참여 의사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사업비의 90%를 담당할 민간 참여자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사업이 출발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그간 다양한 국비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지방재정투자사업에서 발생한 추진상의 어려움과 한계들을 검토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특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지역개발사업은 낮은 사업효과와 낮은 지속가능성 및 소극적 지역투자에 치중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자체와 민간이 어떠한 제약 없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프로젝트 규모의 제한이 없으며, 프로젝트 신청 가능 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총사업비의 1% 미만의 지분 출자로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예산편성 절차의 제도적 지원 장치도 마련하였으며,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선순위 대출에 대한 HUG의 특례보증 상품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단양군의 사업은 지난 1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모펀드 위탁운영사인 한국성장금융의 투자심의 위원회를 통과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또한 조건부로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관문은 자펀드 운영사에서 모펀드 운영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맞추어 민간 출자자의 출자금과 자펀드 그리고 대주단을 구성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인 단양군의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모펀드 자금을 인출하여 단양군의 지역 활성화에 또 다른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지방소멸대응 지역경제활성화포럼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역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원도 센터장님께서서는 단양군의 생활인구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과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원도 센터장님의 발표는 체계적인 현상 진단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단양군의 세부 추진전략 마련 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정선희 실장님께서서는 글로벌과 국내 관점에서 관광 트렌드를 소개하고, 지역 관광 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단양군의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단양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2018년을 기점으로 인구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단양을 찾는 사람들은 꾸준하지만, 인구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체의 절반 정도가 도·소매, 숙박·음식점, 운수업 등 관광 관련 분야를 영위하고 있지만, 단양군의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는 아직 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의 경우 인구유지 정책을 추진하되, 내·외국인 관광객 등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는 전략이 현실적이며, 다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역연계형 인바우드 관광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단양은 지리적 위치 상 충청북도를 뛰어넘는 타 광역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단양군과 인접한 제천, 영월, 영주, 예천, 문경을 연계하는 형태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역별 특색을 바탕으로 1박 이상 체류하는 고부가가치 관광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상품화해야 합니다.

숙박전용 온라인 플랫폼에 지역 숙박업소 판촉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역 관광을 단양 지역의 농·축산 특산물 판로 확대와도 연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양 지역에는 관광비즈니스와 외식조리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특성화고에 대한 단양군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충청북도와의 직업교육 관련 연계·협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 정주하는 우수인력 양성을 통해 단양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수요에 기반한 생활밀착형 창업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방안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단양군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295명(24.3)으로 인접 기초자치단체 대비 작은 규모입니다. 단양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서는 E-7(특정활동, 11명), E-9(비전문취업, 65명), F-2(거주(지역특화형비자 포함), 36명) 등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소멸 대응은 이미 하고 있거나 해도 안된다는 방식의 접근보다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 가집이 중요합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단양 지역의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토론문

지방소멸대응 지역경제활성화포럼

문소연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전략팀장

□ 지역 인구감소 위기대응을 위해서는 젊은 외지인(귀농, 귀촌) 인구 확대를 위해 지자체장의 리더십과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 구체적 전략과 유인책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젊은 귀농, 귀촌인들의 커뮤니티 구축, 고민을 함께 나누고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두레 등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충청남도 홍성, 전라북도 완주 등)

○ (사례1) 전라북도 완주군

- 전라북도 완주는 인구 10만 명 정도의 소도시이나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청년인구가 늘고 있으며, 관광분야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음
- 전입 귀농귀촌 가구는 3,709 가구, 인구는 5,056명, 40대 이하 귀촌인구 구성의 경우 64%로 청년 일거리 정책 활성화 필요
- 커뮤니티 고봉밥 : 완주 고산-봉동에 사는 2023년 귀촌한 청년 크리에이터들의 모임

○ (사례2) 충청남도 홍성 DMO(지역관광추진조직)

- 홍성 DMO(지역관광추진조직)에서는 “어서와 홍성은 처음이지?”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홍성으로 귀농귀촌한 주민들이 지인들을 홍성으로 초청하는 사업으로, 장밋빛 귀농귀촌 추천보다는 이전에 일주일 살아보기 등의 경험을 통해 홍성에 대한 관계 맺기, 커뮤니티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노력 필요

- 지역소멸 대응 차원에서 관광인구 유치의 중요성 증대, 각 지자체에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류형 / 살아보기형 여행 등을 중점 추진 중
- 공사에서 추진 중인 생활인구 확대사업과 연계강화

- 디지털 관광주민증('24년 단양)

- '22년 평창, 옥천 → '23년 15개 지역 → '24년 최대 34개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
- 인구감소지역 방문유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해당지역 방문 시 방문혜택 부여

- BETTER里('24년)

- 인구감소지역 관광인구 증대사업 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 선발
- 인구감소지역 실증사업지 선정, 권역별 테마 구성 및 기업 매칭

* 사업 예시('23년, 경북 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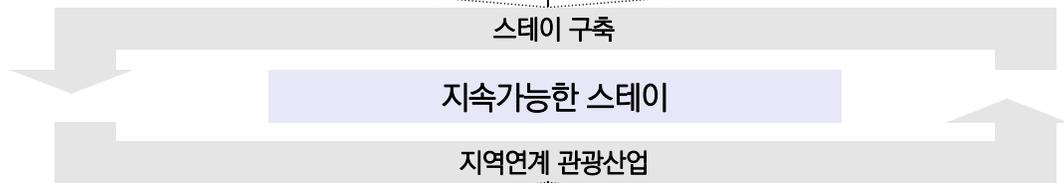
지역 유희공간 활용
(블랭크, 클리, 리플레이스)



장기체류 숙박 플랫폼
(리브애니웨어)



모듈러 호텔
(스페이스웨이비)



(백패커스플래닛)
액티비티 : 캠핑



(알앤원)
액티비티 : 등산



(로이쿠)
모빌리티 : 관광택시

- 이 외에도 지역의 숨겨진 관광지 발굴사업인 강소형 잠재관광지('23년 단양 다누리아쿠아리움), DMO(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사업을 통해 인구 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관광 전문역량 강화

- 기초자치단체의 문화관광재단(LTO)은 '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24년 4월 기준, 총 47개의 문화관광재단이 설립, 이는 전체 기초지자체 226개 중 약 20.8% 해당함
 - 단양관광공사 '21년 설립, 지자체 시설 위탁경영이 주된 사업으로 지역관광 마케팅 전담 조직 및 전문인력 강화 필요

토론문

지방소멸대응 지역경제활성화포럼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2024년 6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였고, 사회·문화분야 입법·정책 방향에서 교육문화 분야는 인구감소 시대,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학 위기, 지역간 불균형, 인구감소 지역 등의 키워드가 주요 키워드로 제시되었습니다. 오늘 포럼 주제인 “지역소멸 대응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역문화와 지역관광 분야의 과제를 논의하는 것은 지역활성화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 의미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문화여가 라이프스타일의 확산 등으로 지역간 문화향유 및 기반 불균형 해소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의 집중 권한을 지방정부에 나누어 지방정부가 스스로 문화정책을 결정하는 문화자치의 요구와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생활문화 센터 조성, 문화도시 및 노후 문화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2022년 발표) 결과 지역문화의 문제는 지역 간 격차(42.6%), 지방소멸(24.9%), 획일화(13.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정책 전달과 보조사업 체계로 인한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문체부 정책사업도 직접 사업, 지자체 보조사업, 민간보조사업을 공모 또는 비공모로 진행하다 보니 지자체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고 자율성이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지역문화에 있어 이러한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향식 정책 의사결정과 소통을 통한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즉, 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틀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주도 하도록 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국고보조사업 방식이 점차 상향식, 포괄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문화 정책 사업들도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및 운영 역량 등을 토대로 포괄 보조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지역문화에 필요한 정책사업을 스스로 제안하고 이를 실행토록 하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방소멸시대의 도래는 지방관광에 있어 인구 고령화, 인구 감소, 지역 공동화 등의 이슈를 생성하였고,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콘텐츠 개발, 지역관광조직 역량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을 대두시켰습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나 인구 감소, 지역 공동화로 유희자원이나 시설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지역관광에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지역 인구 유출 및 감소라는 기존의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생활인구, 교류인구 또는 워케이션, 한달살기, 지역살아보기 등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역 관광을 통한 체류를 늘리는 등 지역관광 수요 창출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일본의 경우는 관광진흥 정책으로 교류 인구 확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회사에 다니는 부모나 자녀의 휴가(방학)을 매칭시키는 ‘가족 시간 만들기 프로젝트’와 자발적으로 직원들의 휴가·외출을 장려하여 새로운 휴가 제도를 설정하는 ‘포지티브 오프 운동(Positive Off)’ 등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간시간대 관광이 아닌 야간 시간에 이루어지는 관광(야간관광)을 통해 관광객의 장기체류와 관광소비액 증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박물관 중핵 문화클러스터(문화청), 스포츠 액티비티 활성화 지원(문부과학성), 에코투어리즘(환경성), 인프라투어리즘(국토성) 등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지역마다 시기나 자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그 방향은 유사할 것 같습니다. 첫째,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강화하고, 교통 등 물리적 거리를 최소화하여 지역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자본이나 기술이 지역관광과 융합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체류·체재형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관광진흥 프로그램과 프로모션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소멸은 한 지역만이 지닌 문제가 아닌 인접된 지역의 공동 문제로 각 지역이 지닌 지역관광의 강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계협력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화의 주요 원인이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임을 고려할 때 청소년, 청년 대상의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지역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3개 키워드로 본 지역관광활성화 전략도 이러한 맥락에서 발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국 지방소멸은 사람, 지방관광도 사람, 지역문화도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됩니다.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의 중심에는 관광객, 지역주민, 청년 등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 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지역이 답이고 사람이 답이다, 자연감소 + 사회증가 = 지역활성화).

토론문

지방소멸대응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윤소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년.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여 국가 총인구가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UN에서는 이러한 추세라면 약 36년 뒤인 2060년에는 생산연령인구(만 15~64세)가 부양이 필요한 비생산연령인구(만 14세 이하, 65세 이상)보다 줄어들게 되고, 한국의 노년부양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UNDESA, 2019).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고령화는 미래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이는 앞으로 오랜기간 산업과 재정, 노동 구조, 교육, 국방, 보건·의료 등의 우리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위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인구 리스크가 현재의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 국가 소멸의 위기로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구 문제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함께 출산율과 성장률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단양군에서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본 포럼은 지역의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행사로 생각됩니다. 관광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소비패턴 변화와 함께 지속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관광업은 서비스업종으로서 인적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제공할 수 있고, 지역 내 다양한 부문과 연계되어 지역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의 구축과 관리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양군이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이러한 배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의 성공여부는 결국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고 싶은 매력을 가진 도시만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일본의 홋카이도에 있는 히가시카와라는 지역은 작은 소도시이기는 하지만 매년 국내외로



수많은 사람이 사진을 찍기 위해 방문하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마을’로 유명한 이 도시는 1985년 사진마을 조례를 제정한 후 ‘사진’이 잘 나오는 예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관 관리, 건축물 조성, 특산품 개발, 관광서비스 개발 등 지역개발계획 전반에서 이를 고려했습니다. ‘사진마을’이라는 도시 브랜딩과 함께 특화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이주 관련 정착지원금 제도 등이 없는데도 지난 30년 동안 약 20%의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히가시카와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가 진행 중인 일본 내에서도 정책을 통해 인구 증가에 성공한 대표적으로 지역 사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적 자원을 바탕으로 오랜기간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자리 매김해 왔습니다. 자연이 주는 혜택에만 의존하지 않고, 만천하스카이워크와 잔도길 조성, 수상레포츠산업의 육성을 통한 수변관광 개발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역세권 관광개발 등 관광산업의 트렌드에 맞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활력 저하, 중장기적 재정 문제 등이 예상되는 만큼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자립적 역량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발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데이터에 기반하여 관광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접근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데이터 구축과 모니터링이 수반 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다각도의 분석과 이에 근거한 정책 수립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가시카와 사례에서도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인구 증가라는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방문객이 또 오고 싶게 만드는 데는 경관·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의 인심과 친절, 서비스 등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역브랜딩은 단순히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을 포함한다는 것을 염두하고 전략을 수립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문

지방소멸대응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2023년 1분기 합계출산율 0.82명에 비해 0.06명 감소하여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또한 2023년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 전년대비 0.1세 상승하였고,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첫째아는 33.0세, 둘째아는 34.4세, 셋째아는 35.6세임.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청년세대들의 가치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저출생은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 단양군의 인구규모는 1992년 49,081명에서 2000년에 40,000명, 2010년 31,817명, 2020년 29,155명, 2024년 3월 현재 27,620명으로 1992년 대비 2024년 3월에 -4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단양군 인구 31,817명 가운데 유소년인구(0~14세) 3,706명(11.6%),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1,076명(66.2%), 고령인구(65세 이상) 7,035명(22.1%)에 불과하였음. 2024년 3월 인구 27,620명 가운데 유소년인구(0~14세)는 1,687명(6.1%),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5,728명(56.9%), 고령인구(65세 이상)는 10,205명(36.9%)으로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 인구는 점증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고령인구는 증가 추세를 나타나고 있음. 특히, 출산율이 감소하고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인구 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지원할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양군을 포함한 89곳을 대상으로 자연적 인구감소와 인구유출로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지방소멸기금을 지원하는 등의 기반 마련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가속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도시 중심의 도시권과 인접하고 있지 않은 단양군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점에서 오늘 지방소멸대응 지역활성화포럼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이원도 박사 “지역 인구감소 위기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단양군 생활인구 특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과 정선희 실장 “3개 키워드로 보는 지역관광활성화 전략”은 시사하는 의미가 큼
- 먼저, 이원도 박사께서 단양군 인구의 양적 감소와 질적 변화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다양한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의 원인을 살펴보고, 인구감소가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현재의 인구가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첫째, 단양군 청년인구는 계속 유출하고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인구감소의 폭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중고령층이 유입하고 있기 때문임. 향후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악순환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단양군 전입자를 위한 동거가족 전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단양군에 정착하여 살고 싶지만 일자리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이 요구됨
 - 둘째, 단양군은 현재 대부분의 중장기 계획수립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바, 이를 새로운 틀에서 어떻게 다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셋째, 단양군 고령화율은 2024년 3월 기준으로 36.9%를 초고령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령자 외로움을 방지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세대간의 동거 혹은 인근에 거주할 경우 신축, 리모델링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세대 동거는 ‘저출산 대책’으로 동거하고 있는 부모가 육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아이를 가지면서도 여성이 밖에서 일하기 쉬움. 조부모의 육아 지원을 받고 싶지만, 3세대 동거를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조부모로부터 아이의 양육 지원을 원하는 부모들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생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 * 이를 위해 “단양군 3세대 동거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km 이내 거주하면서 주택구입 혹은 재건축을 할 때 재정적인 지원을 함

○ 정선희 실장은 ‘트렌드’, ‘데이터’, ‘성과지표’ 3개를 키워드로 보는 지역관광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단양군이 직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첫째, 단양군은 지리적으로 경상북도 영주시·예천군·문경시, 충청북도 제천시, 강원도 영월군 등 3개 도(道)와 연결한 내륙지역으로 시, 군 간에 연결하고 있는바, 관광을 활성화 함으로써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함

* 한국관광데이터랩의 2023년 단양군 방문자 거주지를 살펴보면 제천시 8.1%, 영주시 3.1%, 원주시 3.1%, 충주시 2.7%, 안동시 2.2% 순으로 인접 지역과의 방문객 교류측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충북의 인접 지역이 매우 높은 수준임

* 한국관광데이터랩의 2023년 단양군 내국인 관광객이 BC+신한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은 식음료업 21,361백만 원, 여가서비스 5,460백만 원, 숙박업 4,908백만 원, 운송업 875백만 원, 쇼핑업 263백만 원으로 총 32,869백만 원으로 나타남

* 그러므로 최근 지방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도시권에 인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양군은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바, 소멸인구의 관광 대체효과를 통해 지역활력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됨

* 인접 지역과의 연계된 관광자원을 확충함으로써 관광객 수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관계인구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는 인구유입에 기여할 것임

- 둘째, 단양군의 인구는 전국의 2024년 기준 27,620명으로 전국인구의 0.054%, 충북의 1.74%에 불과한 작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역 간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음. 그렇게 함으로써 전국민이 방문하고, 몇 달만 살아보면, 정착하고 싶어지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향후 단양군에 어떠한 인재가 필요하고, 관계인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임

